

‘금값’ 한우에 구제역까지 ... 설 식탁물가 불안

한우 사육 마릿수 감소로 쇠고기값 크게 올라

돼지고기·햄 등 인상 우려 ... 두부·달걀 ‘꿈틀’

연초 주요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른 가운데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설을 앞두고 식탁물가가 심상치 않다.

최근 한우 사육 마릿수 감소로 쇠고기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돼지고기와 햄·소시지 값 인상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평균 구매 비용은 전통 시장 기준 23만2138원, 대형유통업체 기준 32만9384원으로 조사됐다. 각각 작년과 비교해 4.9%, 5.3% 올랐다.

이는 차례상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쇠고기 가격 상승 때문이다. 부위별로는 작년보다 양지가 전통시장에서 10.1%, 대형유통업체에서 5.6% 올랐다. 우둔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에서 각각 9.5%, 18.5% 상승했다.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값도 불안하다. 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지역 돼지의 반출을 금지했으며, 구제역 발생농가의 돼지는 매몰 처리하기로 했다.

명절을 앞두고 출하 물량이 가장 물리는 시기에 반출금지 명령이 내려져 축산농가들이 돼지 출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 가격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확보된 원료가 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당장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과거처럼 구제역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평소에는 물론 설 명절 요리에도 빠지지 않는 두부와 달걀값은 이날 초 올랐다. 품무원은 36개 두부 제품 가격을 5.3%, 5개 달걀 제품 가격을 평균 3.9% 인상했다.

앞서 지난달 품무원은 짜장면류 제품은 평균 3.1%, 핫도그류는 평균 11.9% 인상했다.

품무원은 국내 두부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다. 프리미엄급 달걀 시장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업체들도 두부 값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 술로 꼽히는 소줏값도 일제히 인상됐다.

하이트진로가 작년 11월 말 ‘참이슬’ 가격을 올렸고 금북주, 무학 등 지방 주류업체들도 인상에 동참했다.

이어 롯데주류가 ‘처음처럼’의 출고 가격을 지난 4일 인상했다. 음료 값도 오르고 있다. 코카콜라음료는 지난달 1일 자로 스프라이트 5개 품목의 공급가를 평균 7% 인상했다. 동아오츠카는 다음 달 포카리스웨트의 가격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소비자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과일 가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비 침체와 생산량 증가 등으로 현재 과일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20~30% 낮은 수준이다. 1월 상순 기준 후지 사과 10kg의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2만3019원으로 작년보다 53.5% 하락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美·中 등 글로벌 증시 불안

외국인 매도세 지속파라

실적호전 중 소형주 저점 매수 고려

연초 이후 중국발 충격에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위안화 가치는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중국과 글로벌 주식시장은 급락세를 보였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연초대비 18%를 하락했고 지난주만 8.95% 하락을 기록하며 3,000선 지지에 실패했다.

일본니케이지수도 올해 들어 9.9% 하락했고 지난주만 4.4%하락해 박스권 하단에 근접한 17,147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지난주 중반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미국증시도 금요일 중국증시가 3.5% 급락하고 12년만에 최저치로 하락한 국제유가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금요일 발표된 부진한 경제지표는 글로벌 경기둔화에서 미국경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며 금요일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모두 2% 넘게 하락했다.

연초 이후 중국경제와 위안화 환율불안에 대한 언급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국내증시와 글로벌증시가 단기적으로 시장이 진정된다 해도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불안요인과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체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지난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피력했듯이 수년간 과잉공급과 비용증대, 부동산 및 금융산업에 대한 개선을 통해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부터 과잉산업(철강, 비철, 석탄, 시멘트, 조선)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마다 시장의 반응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새해 들어 중국을 비롯한 해외증시의 불안에도 한국 주식시장은 코스피지수가 1900선을 하회하기는 했지만 연초대비 4.2%하락에 그쳤고 코스닥지수는 -0.6%로 강보합세를 보이며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임에도 투자자들은 글로벌 증시 충격에 국내증시가 버티줄 것이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지수는 전날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가 동반 급등했지만 지속적인 외국인매도와 유가급락에 따른 중동계 자급의 유출을 우려하며 장조반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반전하며 마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번주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는 중국시장과 글로벌증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기관의 소극적인 시장대응의 이어진다면 이번주도 지수조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초 이후 강세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업종과 중소형주도 지난주 후반부터 차익실현 매물과 시장불안에 따른 매도물량이 나오고 있어 탄력이 둔화되며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적인 시장 접근이 필요해 보이지만 1900선이 하로 하락한 코스피지수의 반등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

1850선이하에서는 KODEX레버리지와 실적호전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반등을 겨냥한 저점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것도 가능해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전남농협 통합마케팅 관계자들이 경남권 수출업체를 찾아 우수 농산물의 수출 판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전남농협, 경남 무역업체들과 손잡고

지역 우수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나서

골드키위·단호박·멜론 등

베트남·일본·대만에 수출

전남 농협이 경남 무역업체들과 손잡고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품질 농산물의 수출길 판로확보에 나서고 있다.

17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에 따르면 최근 관내 지역농협·통합마케팅 조직 등이 경남권 수출업체인 ㈜부림교역·㈜한사

랑·㈜한솔무역 등과 우수농산물 수출 협약을 했다.

김해의 ㈜한사랑은 해금골드키위 10t을 베트남으로 선적하기로 했으며, 부산 소재 ㈜부림교역은 이날 중 그린키위와 골드키위를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또 진주의 ㈜한솔무역은 진도에서 생산된 단호박 600t을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하고 현지 대형 유통망 확보에 나섰다.

전남의 주요 수출농산물인 멜론도 ㈜부림교

역과 ㈜한솔무역이 각각 대만과 일본 등에 수출한다.

이번 수출협약은 우수농산물을 생산한 전남의 지역농협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이 농산물 수출 경험이 풍부한 경남지역 무역업체와 연계해 수출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협전남본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성과를 거뒀다.

농협전남본부는 올해도 경남지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관내 우수 농산물을 소개하는 마케팅 활동을 15차례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강남경 본부장은 “경남 수출업체를 통해 수출 성과를 거둔 것도 우리 농가가 직접 수출시장을 개척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올해도 다양한 수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명태

해수부, 설 앞두고 수산물 1만t 방출

명태 등 10~30% 할인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1만여t을 시장에 방출한다고 17일 밝혔다.

품목별 방출 물량은 명태 4000t, 오징어 810t, 고등어 500t, 갈치 150t, 조기 70t 등이다. 방출 시기는 오는 18일부터 설 직전인 내달 6일까지다.

전국 주요 38개 전통시장에 방출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한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시중 가격보다 10~30% 싸게 방출 수산물을 살 수 있다.

품목별 가격은 고등어 400g 1500원, 명태 700g 1550원, 오징어 360g 1700원, 갈치 400g 1만3500원, 조기 100g 3350원 등이다.

아울러 전국 바다마트와 수산물 전문 온라인몰(수협쇼핑·피쉬세일 등)은 굴비, 옥돔, 멸치 등 설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특판 행사를 연다.

/연합뉴스

7층

상가건물매매

▶ 1층 (커피숍)

▶ 2층~5층 (사우나, 주택)

▶ 6층~7층 (설계사, 건축사)

※ 은행대비 최고 안정적 상가건물

※ 공실 없음 / 을시설 / 월세 책임보장

☆ 월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1억5천/ 용6억)

매가 16억

(7층상가건물, 사우나,커피숍 직영가능하므로 수익률 상승)

※주인 직매 010-6670-9800 / 010-7384-7800

신축상가 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야아파트 후문앞 코너)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 투룸 2개)

4층 (주택)

(방 3개 ,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 다용도실)

☆ 보 5,000만 월 500만 ☆ (용1억2천)

매가 6억 8천만

※ 상가겸 원룸건물이므로 장래 갑어치 상승 확실히 있음

010-6834-4800 010-6832-9700